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9월 1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장성길 과장(2110-4792), 이명재 사무관(2110-4797)

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(RCEP) 제2차 공식협상 개최

1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(RCEP) 제2차 공식협상이 '13.9.23(월)~27(금)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.

* RCEP 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
- ASEAN 10개국 및 ASEAN과 양자 FTA를 체결한 6개국(한, 중, 일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) 등 총16개국이 참여하는 아·태지역 경제통합 논의

o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, 기획재정부, 공정거래위원회, 미래창조과학부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관세청, 산림청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예정

2 금번 2차 협상에서는 상품/서비스/투자 작업반별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, 여타 분야에서의 추가 작업반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

3 정부는 RCEP이 우리의 민감분야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지역경제통합이 될 수 있도록, 협상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.

참고 : RCEP 경과 및 주요 내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장성길 과장(☎ 02-2110-47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RCEP 경과 및 주요 내용

I 추진 배경

❑ 전세계적인 지역경제통합 논의 활성화

○ WTO DDA 협상의 부진으로 2000년대 이후 양자 FTA가 급증하였으나, 근래 들어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 논의 활성화

❑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에 있어서의 미국, 중국간 주도권 경쟁에 따른 ASEAN의 대응

○ 미국 주도의 TPP(Trans-Pacific Partnership), 중국 주도의 중화권 FTA (홍콩, 마카오, 대만) 및 한·중·일 FTA 추진으로 동아시아 지역내 경제통합 논의 본격화

○ ASEAN 차원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 유지를 위해 RCEP 논의 주도

- ASEAN과 FTA를 기체결한 6개국(한·중·일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) 대상

II 추진 경과

❑ 협상 경과

○ 2012.11.20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RCEP 협상 개시 선언

- ASEAN 10개국 및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(한·중·일·호주·뉴질랜드·인도) 등 16개국이 참여
- 향후 협상의 지침이 되는 RCEP 협상지침(Guiding Principle)* 채택

* Guiding Principle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상 범위 : ① 상품, ② 서비스, ③ 투자, ④ 경제기술협력(전자상거래), ⑤ 지재권, ⑥ 경쟁, ⑦ 분쟁해결, ⑧ 기타 이슈

- 2013년 협상 개시 및 2015년 협상 완료를 목표 설정

○ 2013.5.9-13 RCEP 제1차 공식협상 개최(브루나이)

○ 2013.8.19 RCEP 제1차 경제장관회의 개최(브루나이)

- 2015년 협상타결을 위한 작업계획을 마련하고, 최종 공식협상(제10차 협상, '15.9월)의 한국 개최 합의

❑ 제1차 협상결과

○ (협상기구 설립) RCEP 무역협상위원회(TNC) 및 3개 분야(상품, 서비스, 투자) 작업반(Working Group) 설립에 합의

○ (협상기구별 문서) TNC 운영세칙(TOR)에는 합의하였으나, 3개 분야별 작업문서(Scoping Paper)에는 미합의

○ (분야별 이슈 정리) TNC 차원에서 분쟁해결, 지재권, 경쟁, 협력 분야별로 개별국이 준비한 Concept paper를 중심으로 논의키로 합의

※ Concept paper 제출 국가 : 한국(분쟁해결), 일본(지재권, 경쟁), ASEAN(협력)

○ (향후 작업일정) 제2차 RCEP 공식협상(9.23-27, 호주 브리스번) 개최에 합의

○ (제2차 협상 준비) TNC 차원에서 지재권, 경쟁, 협력, 분쟁해결 분야에 대해 Concept paper를 중심으로 논의

Ⅲ 추진 필요성

1.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기반 구축

❑ RCEP 참여국에 우리의 제1, 2, 3위 교역 대상국인 중국, ASEAN, 일본이 모두 포함됨에 따라, RCEP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기반 확보

※ 2012년 기준 5대 교역국 : ① 중국(2,151억불), ② ASEAN(1,311억불), ③ 일본(1,032억불), ④ 미국(1,019억불) ⑤ EU (997억불)

※ 우리나라와 RCEP 체결국가간 교역비중: 47.15% (2012년 기준)

<지역통합체 기준>

순위	국가(지역통합체)	교역액(백만불)
1	중국	215,108
2	ASEAN	131,122
3	일본	103,159
4	미국	101,866
5	EU	99,745
6	사우디아라비아	48,819
7	홍콩	32,606
8	호주	32,238
9	대만	28,827
10	러시아	22,451

<개별국가 기준>

순위	개별 국가	교역액(백만불)
1	중국	215,108
2	일본	103,159
3	미국	101,866
4	사우디아라비아	48,819
5	홍콩	32,606
6	싱가포르	32,564
7	호주	32,238
8	인도네시아	29,631
9	대만	28,827
10	독일	25,155

: RCEP 참여국가

2.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효용 극대화

❑ 역내 국가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 적용 등을 통하여 양자 FTA 체결시 발생 가능한 "스파게티 볼" 효과의 발생 최소화

3.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주도적으로 참여

❑ 초기 단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여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비중 및 역할 증대 모색

❑ 역내 국가간 경쟁구도, 정치적 대립의 완화·해결 방안으로 RCEP 활용

Ⅳ 향후 대응 방향

❑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이익 확보

○ 상품, 서비스, 투자 및 여타 규범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체가 될 수 있도록 협상 참여

❑ RCEP 참여국간 진행중인 FTA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과 극대화

○ 동북아 FTA(한·중 FTA, 한·일 FTA, 한·중·일 FTA), 한·호주 FTA, 한·뉴질랜드 FTA 추진 동향 감안